

風水地理의 대표적 人物 道詠

“高麗의 創建을 豫言”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강한 풍수지리의 전통이 남아 있다. 사는 집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는 판이어서 좋은 자리 나쁜 위치를 따지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상의 묘소고르는데 만은 아직도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이해할 만 한 것이 우리 조상들은 사는 집터 즉, 陽基와 죽은 뒤의 묘자리 즉, 陰宅을 어떻게 잡느냐가 운명을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했었던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그걸 잊을 수 없는 것이다.

風水地理說은 自然을 설명하는 先祖들의 理論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풍수지리는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많은 지식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서 이치에 닿지 않는 생각들도 만약 그것이 자연을 설명하는 옛 사람들의 이론이었다면 그것은 훌륭한 옛 과학의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풍수지리설은 옛 과학 가운데에도 대표적인 분야로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 우리 민족은 멀리 삼국시대부터 땅모양의 과학적 설명에 많은 노력을 했던 셈이고 이것이 바로 地形의 과학, 풍수지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면의 개척자이며 가장 큰 공헌을 남긴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신라 말기의 승려 道詠(827~898)이다. 통일 신라의 興德王2년 전라도 靈巖에서 태어난 道詠의 속성은 김씨, 15살에 출

가하여 뒤에 유명한 승려가 된 뒤에는 光陽의 白鷄山에 있는 玉龍寺에서 살았기 때문에 玉龍子라 불리기도 한다.

처음 華嚴寺에서 공부하던 그는 뒤에는 전남 谷城의 桐裏山에 있던 惠徹대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뒤 그의 수도 생활은 雲峰山의 굴속에서, 그리고 太白山의 움막에서 계속되어 승려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현강왕은 그를 궁중에 청해다가 설법을 듣기도 했다. 도선의 이름은 이미 그의 생전에 피 떨치고 있었음이 확실하고, 그의 죽음과 함께 더욱 유명하게 되어 갔다. 그가 孝恭王 2년에 죽자 임금은 그에게 空禪師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그 후 그가 말년을 보낸 옥룡사에는 그를 기념하는 탑이 세워지기도 했다. 또 고려의 역대 왕들은 다투어 그에게 대선사, 왕사, 국사라는 칭호를 주어 그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

도선을 이처럼 유명하게 하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고려의 始祖 王建이 그의 후손에게 남긴 소위〈訓要十條〉일 것이다. 왕건이 그의 후손에게 남긴 10가지 교훈의 제2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라 안의 모든 사찰은 도선의 예언에 따라 산수의 순하고 역함을 고려하여 세워진 것이다. 도선은 말하기를 자기가 예언한 곳 이외에 무턱대고 절을 새로 세운다면 지덕을 해쳐 나라의 운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짐은 뒷날의 임금이나 귀족, 왕후, 신하들이 원당을 만

들려고 새로 절을 자꾸 지을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다. 신라말에만 해도 사람들이 다투어 절을 지어 지덕을 해쳤고 그 결과 나라가 망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일인가?』

이만하면 당시 도선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짐작이 갈 것도 같다. <훈요십조>에는 또한 왕진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산천의 덕을 입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서경 즉, 평양은 지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되는 곳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제5조). 또 풍수설을 들어 왕진은 그 후손에게 車峴의 남쪽 금강 밖의 지세는 모두 반역적으로 생겼으므로 그곳 출신은 일체 중요한 직책에 등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제3조).

訓要十條에 道說의 豫言을 따를 것을 강조

실제로 도선이 이런 가르침을 남겼는지는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볼 길이 없다. 또 <훈요십조>가 그리 잘 지켜진 것도 아니어서 고려 시대에도 많은 사찰이 더 건립되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고려시대를 통해 평양은 계속 중요시 되었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도 지방색이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훈요십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학자도 없지 않지만, 여하튼 그것이 도선의 이름을 후세에 더욱 빛나게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전설에 의하면 도선은 그의 풍수지리학을 唐나라의 유명한 僧侶一行에게서 직접 배웠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 수는 없다. 일행은 도선보다 1백년이나 앞선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전설은 뒤에 도선이 풍수지리의 대가로 꼽히게 되자 그 추종자들이 그의 권위를 높이느라고 만들어 낸 말일 것이다. 차라리 도선의

전설에 의하면 도선은 풍수지리학을 당나라 승려 일행에게서 직접 배웠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실일 수는 없다. 이들은 도선보다 1백년이나 앞선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용건에게 아들을 낳으면 왕건이라 할 것과 그 아이가 자라면 주라는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에 삼한을 통일한 임금에게 드리는 글이라 적혀 있었다고 한다.

스승이었던 혜철대사가 당에 가서 일행에게 배우고 또 책을 구해다가 도선에게 전했다면 그럴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선에 얽힌 전설로는 왕건의 고려창건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꾸며진 것같은 이런 이야기도 있다. 왕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龍建은 松岳(지금 開城) 남쪽에 새 집을 짓고 있었다. 그때 백두산을 올랐다가 산을 타고 남으로 내려 가던 도선이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도선은 지나면서 『締(검은 기장)를 심어야 할 곳에 어찌 麻를 심는단 말인가?』라고 중얼거렸다. 이를 부인에게서 전해 들은 용건은 신발을 거꾸로 꿰어가며 그를 뒤따라 가서 붙잡고 도와줄 것을 청했다. 도선은 용건을 데리고 송악에 올라 산수의 맥을 살핀 다음 그곳이 얼마나 명당인가를 설명해 준 다음 거기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을 가르쳐 주었다.

名聲은 죽은 뒤인 高麗初에 더욱 높아

또 그렇게 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왕건이라 지을 것도 말하고 그 아이가 자라면 주라면서 한 통의 편지를 건네 주었다. 그 편지에는 삼한을 통일할 임금님에게 드리는 글이라 적혀 있었다. 용건은 곧 그 지시대로 집을 지었고 정말로 그 아내는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용건이 왕건을 낳고, 그가 왕씨 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뭔지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듯도 하다. 왕건이란 원래는 그냥 이름이던 것이 뒤에 그가 왕이 되면서 그의 성이 왕씨였던 것처럼 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도선이 왕건의 출생을 예언했다거나 새 왕조의 창건을 내다 보았다는 전설은

고려가 창건된 다음에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에서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도선의 명성은 그가 살았던 신라말기 보다는 그가 죽은 뒤인 고려초에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깊이 신봉하고 있었고, 고려의 창건자들은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새 왕조창건의 정당성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中國의 발달된 풍수지리학 도입에 크게 기여

풍수지리학은 삼국시대 초기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었다. 그가 엉뚱하게 중국에 유학하여 일행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설이 남은 것을 보더라도 도선은 아마 중국의 더욱 발달된 풍수지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도선을 더욱 유명히 만든 또 하나의 사건으로는 고려 중기의 妙淸의 란을 들어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하기는 묘청 이전에도 이미 도선의 권위를 대변하는 여러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12세기 초부터 풍수지리설은 더욱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 고려가 개창된지 2갑자, 즉 120년이 되어서였던 것 같다.

나라의 기초를 다시 튼튼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文宗은 예성강가에 長源亭이란 정자를 세웠고, 또 남경을 현재의 서울 쪽에 두려고 생각했다. 이것이 모두 도선의 예언에 따른 것이라 알려졌기 때문에 권위는 계속 높아갈 수 밖에 없다. 언제 지은 책인지도 알 수 없는 <도선 비기>, <도선 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신지비사> 등이 모두 도선의 책으로 유명해졌다.

계속되는 여진족의 침략아래 국가의 존망을 위협받게 된 상황속에 예종은 많은 신하들의 반대

언제 지은지도 알수없는 도선비기, 도선답산가, 삼각산명당기, 신지비사 등이 모두 도선의 책으로 유명해 졌을 뿐만아니라 그의 권위는 계속 높아만 갔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풍수지리가 한갓 허무맹랑한 미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옛 선조들에게는 생활환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과학이었다.

를 무릅쓰고 1107년 서경에 궁궐을 짓기 시작하여 9년만에 공사를 마쳤다. 때마침 金나라는 그때까지의 형제관계를 君臣관계로 바꾸자고 요청해왔다. 고려인들은 그 치욕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운명을 한 번 새롭혀 볼 필요성을 느꼈다. 게다가 李資謙의 난으로 수도의 궁궐이 타버리자 묘청은 수도를 옮기면 나라의 운이 크게 떨칠 것이라 예언하기 시작했다. 수도를 평양으로만 옮긴다면 고려는 새로운 地德의 힘을 얻어 金나라가 오히려 굴복해 올 것이고 36개 외국이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되어 고려는 세계의 지배자가 된다고 묘청은 주장했다.

道說의 學說은 妙淸 無學으로 계승

이런 노력은 金富軾을 비롯한 학자들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사건에서 묘청은 스스로 자기의 모든 예언술이 도선을 계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선의 예언술은 우선 康靖和에게 전해졌다가 뒤에는 묘청에게 전파되었다는 주장이다. 여하튼 특히 11세기부터 도선의 주장이라하여 시도된 漢陽에의 관심으로 드디어 고려말에는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적도 있었지만 곧 취소되었다.

조선초에 수도는 정말로 한양으로 옮겨졌으며 여기에는 無學이 한 몫 단단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선과 묘청, 무학 등 풍수지리의 대가는 모두 승려였다. 그것이 불교속에 더욱 번창했음을 알려 준다.

지금 우리 눈에는 풍수지리란 한갓 허무맹랑한 미신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옛 선조들에게는 그것은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과학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도선이었던 셈이다.